현불뉴스

락가사 민족화합 법회

강릉 락가사(주지 청우)는 지난 23일 경내에서 보살수계식 및 진신사리친견법회와 함께 남북 7천만 민족화합기원법회를 개최하고 무장공비남침으로 경색된 남북이 하나되기를 기원했다.

이날 보살계에는 고산(쌍계사 조실) 보성(송광사 율주) 종진(해인사 율원장)스님을 계사로 2천여명의 불자가 계를 수지했다. 이어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등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7과가 일반에 공개됐다.

855개 사찰 등급 확정

조계종 사찰등급조정 중앙심사위원회(위원장 월주)는 지난 23일 제3차 회의를 갖고 직지사 용주사등 8백55개 사찰의 등급을 확정했다. 이로서 1차 3백30개, 2차 2백75개 등 총 1천4백여개의 사찰등급이 확정됐다.

심사위는 금년말까지 1천7백여개의 종단산하 사찰의 등급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청강사 대웅전 낙성

경주 청강사(주지 무원)는 21일 김도용 천태종 종정을 비롯 사부대중 2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낙성식 및 삼존불 봉안식을 봉행했다.

31일 선우도량 좌담회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 현봉)은 오는 31일 오후 4시 현대불교 사옥 지하 녹수청산에서 '사찰의 수행환경 보존과 개발문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강화 무애원 군장병 위문

강화 무애원(원장 설봉)은 지난 23일 무애원광장에서 '추계 해병대 위문공연'을 펼쳤다.

이날 무애원은 무장공비 침투로 준전시 상황에서 국방의무에 여념이 없는 지역 장병 6백여명을 초청, 다과회를 갖고 노고를 위로했다. 이어 진송남 김흥국 장미화 등 불자가수들이 출연해 흥겨운 공연을 펼쳤다.

11월 2·3일 학인대회

전국승가대학인연합(회장 부경)은 오는 11월 2, 3일 통도사에서 학인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인대회에서는 '21세기의 승가교육상'이라는 주제로 논문발표회, 각 승가대학별 장기자랑, 체육대회 등이 펼쳐진다.

"청소년 인성교육 절에서"

화성 신흥사 도내 85개 중·고생 수련대회 '호응'

매주 토요일 발우공양·선체조등 정서함양교육

청소년 폭력과 탈선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 화성 신흥사(주지 성일)가 교계 최초로 '청소년 인성수련대회'를 실시, 청소년 포교와 정서순화, 탈선 및 학교폭력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신흥사는 지난 8월 22일부터 도내 85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매주 토요일 1백30명을 대상으로 인성수련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발우공양, 선체조, 심성수련, 풍물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인성수련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놀이문화 제공과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심적부담감을 덜어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청소년수련대회는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까지 폭넓게 참가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청소년들의 자기계발 및 정서함양과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마련된 1일 인성수련대회를 마친 학생들의 소감문 분석결과 약 90% 이상이 매우 좋았다고 답했다.

이에따라 화성군은 "앞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약 2만2천여명의 청소년들 모두를 신흥사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인성수련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찰이 지역사회발전의 중심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신흥사도 청소년들이 하루만이라고 산사에서 부처님의 품속에 푹 빠져 자신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졸업특강, 3박4일 일정의 방학수련대회 등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수련대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3천일기도에 이어 오는 98년까지 두문불출하며 10년기도에 정진중인 성일스님은 '기도기간동안 청소년 인성교육을 하게된 것은 부처님의 가피력'이라며 "청소년 수련대회야말로 올바른 포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교육청 및 행정관청의 지도·선도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는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사 청소년수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청소년 인성수련대회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주지 성일스님

◇인성수련대회에 참석한 경기도내 청소년들은 '인연맺기' 프로그램을 통해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청소년이 되자며 인연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김중근 기자

청소년 환경감시 민간기구 재정지원

문체부장관, 종교지도자 세미나서 밝혀

96년도 종교계지도자 세미나가 지난 24, 25일 서울 라마다 올림피아호텔과 경기도양주 한마음수련장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각 종교지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화체육부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공동주최해 '청소년과 종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종교지도자들은 우리사회의 청소년문제 등 공동과제에 대한 종교계의 역할을 논의하고 정부와 종교계와의 긴밀한 협조를 모색키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문화체육부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규제와 단속을 위해 종교계에서 민간감시활동을 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수 문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 재정지원을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종교단체가 감시활동에 앞장서서 시민의식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종교인의 자세'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대문명이 걷고 있는 이윤추구의 길을 종교마저 답습한다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경제적 가치기준이 모든 판단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을 때 종교인들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관련법 개정안 국회 상정키로

조계종 총무원-정각회 22일 모임서 논의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건축법 농지법등 불교관련 국가법령 가운데 불교계가 피해를 보고있는 법안의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총무원 부장스님과 서석재 정각회장(신한국당)을 비롯한 정각회 회장단은 지난 22일 롯데호텔에서 상견례를 겸한 조찬모임을 갖고 대정부관련 불교현안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스님들은 "불교관련법안의 개정문제는 불교계가 10년이상 관심을 갖고 협의해온 사안으로 이미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친 사안이다"며 불교관련 국가법령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회기중에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대해 서석재회장은 "불교계가 요구하는 개정안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후 정각회원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규(국민회의) 구천서 부회장(자민련)도 "이미 조계종이 보낸 자료 검토를 마쳤다"며 당차원에서 개정안을 상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장 원우스님은 "농지법에 따라 범어사 농지가 대지로 바뀌는 바람에 사찰토지를 팔아 종토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미 법원판결이 났지만 특단의 조치로 사찰토지가 망실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JTS 31일 조계사서 사단법인 설립기념식

한국JTS(이사장 법륜)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조계사문화회관에서 사단법인설립 축하 기념식 및 스리랑카 지역운동가 아리야라뜨네박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전통사찰 50곳 '훼손 위기'

조계종 문사부 실사

전국의 조계종소속 6백92개 전통사찰중 50개 사찰이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사찰환경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사회부(부장 성관)가 지난 9월 23일부터 1달간 1천6백여개 사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찰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2백여개 사찰이 문제제기를 했으며 이중에서 50개 사찰의 사찰환경이 위험지경에 놓여있다고 보고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찰환경 침해 유형은 자연환경 문화환경 수행환경 파괴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찰과 분쟁발생자와의 관계도 분쟁의 위험이 다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직지사 둔경봉암사의 온천개발 부산범어사 자원사의 진입로 분묘지 비행장소음 봉화 홍제암 계곡관광지개발 백담사입구 종합휴양지 조성공사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조계종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새 스님 330명 탄생

제17회 조계종 구족계 수계산림이 22일~27일까지 비구 173명 비구니 157명 등 3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도사(주지 목산) 설법전에서 봉행됐다.

22일 고불식은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과 전계대화상 청화스님을 비롯 교육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종정 월하스님법어 죽비전달 수계자서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월하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혜로서 악을 그치고 선정으로 육천을 벗어나고 계법으로 깨달음을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수계산림은 일주일간의 엄격한 수행생활점검을 거쳐 27일 수계식을 거행, 회향했다.

조계종 사업부 2년만에 폐지

문사부 분리등 총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생산불교를 지향하며 의욕적으로 출범한 조계종 사업부가 2년만에 폐지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지난 21일 문화사회부를 문화부와 사회부로 분리하고 사업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총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총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불교의 역할 증대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문화사회부를 문화부와 사회부로 분리, 확대하고 문화부의 업무관장범위를 △불교문화예술의 진흥육성, 발굴 및 조사, 국내외 교류 △성보 및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관람료 사찰 확대지정 △종단문화행사 관장등으로 정했다. 사회부는 △사회 장 단기사업계획수립 △종단사회단체 관리 감독 △사찰 환경보존 △승려복지 △종단산하 각종 사회복지 △국제불교교류 △방송 언론에 관한사항을 담당한다.

하루 한끼 굶기 捨身공양운동 전개

생명나눔실천회 11월9일 조계사서 수익금 장기기증에

불교계의 헌안 헌혈 장기기증운동을 펼치기 위해 설립된 (사)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오는 11월9일 조계사에서 '이웃을 위한 사신(捨身)공양운동'을 전개한다.

'이웃을 위한 사신공양운동'은 나의 몸을 버려서 일체생명을 구제한다는 의미로 생명나눔실천회는 하루 한끼 굶어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타행을 베풀자는 동체대비 실천의 장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불교계에서는 초유의 일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장스님은 "개신교와 선명회에서는 이미 '금식기도' '사랑의 빵 나누기운동'의 형태로 저변화돼 있다"며 "부처님의 자리이타사상을 불자들이 몸소 실천해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청년회와 조계사청년회 공동 주관으로 펼쳐지는 이웃을 위한 사신공양운동은 뇌사상태에서 장기기증의 집도상황을 보여주는 장기기증사례 비디오상영으로 시작된다. 또 '사신공양이 주는 의미와 불자의 역할'에 대한 본각스님의 강연과 촛불의식 및 탑돌이, 조계사 청년회 풍물패 한마당, 범조스님의 찬불가 공연이 이어진다.

본각스님은 "부처님의 사신공양사상이 보살의 대수고(代受苦, 남의 괴로운 고통을 내가 대신 받아 준다는 실천운동)로, 현대사회에서는 장기기증을 통해 이타행을 실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참불자상"이라고 강조했다.

생명나눔실천회는 이번 행사로 얻어진 수익금 전액을 장기기증 수술비 지원 및 검사비 등으로 쓸 방침이며, 앞으로 1년에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고속철 경주역사

건천 유력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역사(驛舍)예정지는 경주시 외곽인 건천읍 방내리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경주 새노선 선정을 위한 타당성 회의'에서 문화재와 자연경관의 보호, 도심접근 용이성, 역사확보를 위한 부지 규모 등을 고려 경주역사 예정지로 건천읍 방내리와 내남면 덕천리로 의견을 좁혔다.

교통개발연구원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현지조사와 11월15일까지 제출할 이 일대의 지표조사 보고서를 참고로 11월말 공청회를 거쳐 경주노선 및 역사 위치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마음 사랑을 하려거든

진정한 사랑은 집착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이 어느 대상에 한정된 것이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만물이 평등해서 둘이 아닌데 어느 것은 사랑하고 어느 것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동체대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 사랑을 하려거든 진짜 사랑을 하십시요.

(한마음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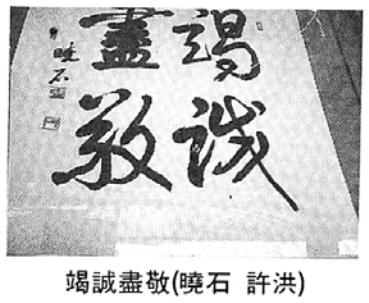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 法堂 부지 기금 마련을 위한 작품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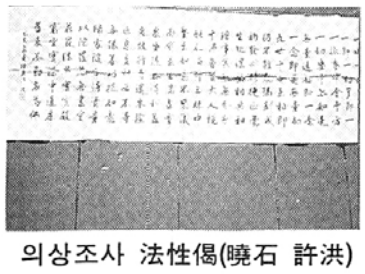
"月下 宗正 큰스님 作品 外 다수"

民和年豊(月下 宗正 큰스님)

금강경 8폭 병풍



竭誠盡敬(曉石 許洪)



의상조사 法性偈(曉石 許洪)

작 품 목 록

- 民和年豊(月下 宗正 큰스님)
- 詩 10폭 병풍 (月下 宗正 큰스님)
- 금강경 8폭 병풍
- 竭誠盡敬(曉石 許洪)
- 의상조사 法性偈(曉石 許洪)
- 만다라(티벳스님)

法堂 佛事를 위해 宗正 큰스님 작품외 다수를 판매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와 수희 동참을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용님禪院 부설 : 선관단식 수련원

주소 : 경남 사천군 용현면 와룡산
전화 : 0593)34-1115